

# 인터넷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신순식 /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과장

## 인터넷 비즈니스의 등장

최근 인터넷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99년 8월 말 현재 5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세계 인터넷이용자는 98년 말 현재 1억 50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폭발적 확산은 사이버 스페이스를 인류의 새로운 활동영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으며 정치, 경제, 학술, 오락 등 물리적 공간에서 벌어지던 활동을 가상공간에서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 국방성의 ARPANET(69년)에서 시작된 인터넷은 이제 단순한 정보검색용 도구에서 진일보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여는 장(場)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념을 깨는 신산업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서점 반스앤노블사(22억달러) 가치의 10배가 넘는 220억달러를 넘어섰고, 모토로라의 하청업체로 출발한 시스코사가 1,000억달러의 기업가치를 보유한 회사로 부상하였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한메닷컴, 골드뱅크 등의 인터넷 벤처기업 주가가 코스닥 시장에서 연일 새로운 기록을 갱신중이다.

그러나 몇몇 벤처기업의 성공은 전자상거래로 대변되는 인터넷비즈니스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단초역할을 할 것은 분명하지만 인터넷 비즈니스의 전부는 아니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진정한 의미는 경제 각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아울러 새로운 비즈니스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다.

인터넷을 통해 기업들은 구매비용 절감, 재고감소, 제품개발에서 판매까지의 시간단축, 효과적인 고객서비스, 마케팅 및 판매비용의 감소, 새로운 판매기회 획득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실제로 GE(General Electric)는 조달에 필요한 노동비용의 30%를 절감하였고 구매 물자의 가격을 20%까지 인하할 수 있었다. 또한 IBM은 재고관리를 효율화하여 5억달러의 재고를 감소시켰고, CISCO사는 인터넷을 통해 97년에 32억달러의 제품을 판매한 바 있다.

한편 인터넷 비즈니스의 확산은 사업방식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임금, 기술자격요건 등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자리의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2006년 미국 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인터넷 비즈니스에 종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인

터넷 비즈니스에 관련된 노동자(silicon-collar)와 기타 노동자간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져 현재 약 2만 달러 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새로운 우주의 삶의 방식으로 채택하는 개인, 기업, 국가는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개인, 기업, 국가는 소멸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산업사회를 주도(Dominant Power)하고 있는 선진 각국은 지식정보사회에서도 힘과 번영의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가기 위해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범국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인터넷 비즈니스의 현황 및 전망

인터넷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를 총칭하여 인터넷 비즈니스라고 할 때 인터넷 비즈니스tm의 분야는 인터넷 기간망사업부터 전자상거래, 웹호스팅, 인터넷전화 등 다양하고도 광범위해서 이를 분류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크게 인터넷 접속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는 경우와 인터넷광고 등 기존의 비즈니스가 인터넷을 활용하여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으며, 성질별로는 인터넷 전송망 및 장비 비즈니스, 인터넷 접속 비즈니스, 인터넷 기반 S/W 비즈니스,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 인터넷 전화 및 팩스 비즈니스로 분류하고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분류

인터넷 전송망 및 장비비즈니스	인터넷 접속 비즈니스	인터넷 기반 S/W비즈니스	인터넷 전자상거래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	인터넷 전화, 팩스 비즈니스
- 인터넷 전송을 위한 물리적인프라 구축 - 서버, 라우터, 스위치 - 접속장비(모뎀, 셋톱박스, 인터넷TV) - 네트워크 PC	- 인터넷접속 서비스 - 웹호스팅 서비스 -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 - 인트라넷관련 서비스 등	- Web 브라우저 - 정보검색 S/W - 인트라넷 관련 S/W - 고도멀티미디어 관련 S/W - 보안 관련 S/W - 에이전트 S/W	- B to B - B to C	- 인터넷 광고 - 인터넷 서점 - 인터넷 출판 - 인터넷 오락 - 인터넷 쇼핑 및 사이버몰 - 인터넷 금융 - 기타	- 인터넷 전화 - 인터넷 팩스

※ 자료출처 : 인터넷비즈니스 발전대책, 정보통신부, 98. 1월

위와 같은 분류에 따라 국내의 인터넷 비즈니스 규모를 산출하면 1998년 말 현재의 규모는 약 3조원 정도이며 2002년에는 약 11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세계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98년 말 현재 300억불 정도이며 2000년에는 1,710억불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의 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인터넷 전송망 및 장비1)	25,320	27,433	31,438	36,428	42,082	47,948
인터넷 접속 서비스2)	4,040	5,547	8,040	11,879	18,050	27,444
인터넷 기반 S/W	349	491	629	855	1,299	1,975
인터넷 전자상거래	740	10,122	17,546	-	38,000	-
인터넷 콘텐츠	1,127	1,861	3,020	4,930	8,071	13,282
인터넷 전화 / 팩스	231	400	609	761	926	1,081

※ 주 : 1. 인터넷전송망 사업은 데이터 네트워크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인터넷 장비사업은 네트워크장비, 서버, PC, 모뎀 등을 포함하여 산출 2. 인터넷 접속서비스는 ISP와 PC통신을 합하여 산출  
3.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현재 정부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된 기반확충이 첫째이고, 인터넷 비즈니스의 분야별 활성화가 그 둘째이다.

첫째, 인터넷 비즈니스 기반확충은 불편함이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저렴한 요금으로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인터넷 기간망 고속화, 인터넷 이용요금의 저렴화, 인터넷 주서관리체제 개편, 인터넷 활용능력 강화, 양질의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인터넷 기간망을 고속화하기 위해 5대 도시간 인터넷 기간망을 45Mbps에서 금년 중 622Mbps, 2000년 2.5Gbps급으로 고속화하는 한편 병목구간으로 작용하는 인터넷 국제회선을 98년 325Mbps에서 99년 736Mbps로 확충할 계획이며, 향후 초고속·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차세대 인터넷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가입자망은 경제성 및 추진여건을 고려하여 ADSL, ISDN, CATV, 무선, 위성망 등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구축하되, 저렴한 요금으로 24시간 자유로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ADSL, CATV를 이용한 정액제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제공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PC, 고속전용선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인터넷 플라자를 국가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터넷 기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정보화의 장으로 육성하고, 현재 게임위주의 영업형태를 정보 검색, 정보화교육, 전자상거래 등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비즈니스 창업 등 인터넷을 통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99년 6월 인터넷 주서관리체제를 개편하고 개인의 도메인네임 등록 및 기관의 복수도메인 등록을 허용한 바 있으며, 고갈이 예상되고 있는 인터넷 주소(IP adress)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Pv6 등 새로운 인터넷 주소체계의 조기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중이다.

인터넷 비즈니스 기반확충에서 인터넷 기간망 고속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능력제고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99년 3월 국민정보화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인터넷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 1인 1PC를 실현하기 위해 99년 10월부터 인터넷PC를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아울러 기존 인터넷 이용자의 관심유지와 새로운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식정보 연계활용체제 구축계획(99~2002년)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학술연구, 과학기술, 역사, 문화예술 분야의 지식정보를 집중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인터넷 전송망 및 장비 비즈니스, 인터넷 접속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등 분야별로 인터넷 비즈니스를 활성화하여 신산업의 육성 및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창업 지원실 설치, 법·제도 개선, 관련 기술의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라우터, 서버 등 인터넷 장비와 전송망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까지 2,629억원을 투입하여 테라급 라우터 및 IPOW(Internet Protocol Over WDM) 접속기술 등 차세대 인터넷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2004년까지 1,000배 빠른 인터넷을 구현하는 등 인터넷 비즈니스의 기반을 확충하고 동시에 핵심장비의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터넷 접속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ISP 협의회 설립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상호접속(IX), IP주소 할당정책 등의 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며, ISP사업자의 사업비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선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제회선 공동구매, 관리를 위한 전담 네트워크 사업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S/W 산업 지원정책의 시행에 있어 인터넷 기반 S/W 비즈니스 분야의 우선순위 및 비중을 높이고, 차세대 인터넷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서비스 플랫폼 기술, 워크플로우 관리 기술, 대용량 멀티미디어 공동처리 기술 등 핵심적인 인터넷 기반 S/W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 비즈니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년 7월 전자서명법과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며, 전자상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투명하고 일관성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당표시광고에 대한 직권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중 110억원을 투입하여 암호화, 전자서명, 전자지불 기술 등 전자상거래에 핵심적인 요소기술 개발 확대와 표준화를 추진하고 상품정보 등의 표준화, 공동물류체계 구축지원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공통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소핑몰 업체, 물류업체 등 각계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인터넷 콘텐츠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소자본 예비 창업자들의 SOHO 창업 지원실을 추가 설치하고, IP 컨설팅 POOL을 구성하여 IP 업체에 관련 기술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IP, S/W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업체에 개발에 소요되는 고가장비, 기술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전화, 팩스 비즈니스는 등록여건만 갖추면 모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되, 과다 경쟁에 방과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며, 원활한 국내 서비스 지원은 물론 해외 진출 차원에서 관련 기술 및 장비의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